



5면

주한체코문화원과 문화교류논의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음 4월 2일) 제30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김관영, 민주 도지사 후보 선정

결선서 최종 후보 올라
“유능한 경제도지사
산업생태계 대전환
정치교체 선봉장” 포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김관영 전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저녁 김관영·안호영 두 경선후보 간 치러진 최종 결선 결과, 김관영 후보가 선정됐다. 득표율은 사전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정한 김 전 의원은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짧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의원은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조성 ▲기업 5개 이상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그린뉴딜 선도 ▲전주 옛 대한방직 터에 초·고·중 건물(마천루) 건립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 조성 ▲새만금 국제학교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결선 발표 직후 “감사의 말씀을 통해 먼저 “그동안 경선에 동행하신 안호영 후보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함께 하신 송하진 지사님, 유성엽 후보님과 김윤덕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결선에서 이긴 김관영 후보가 지난달 2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린다”고 했다.

그는 “전북도민의 절박하고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전북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되겠다”라며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지사가 되며 전북의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전북을 살리는 큰 꿈, 정치를 바꾸는 큰 꿈이 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할 것”이라며 “전북과 호남정치를 대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한 이때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교체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을 윤석열 당선인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후보는 “더 겸손하고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도민 여

러분을 만나겠다”면서 “자만하지 않고 매번 약속드렸듯이 전북도민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거듭 감사와 포부를 밝혔다.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김관영 후보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전 의원과 본선 맞대결을 펼친다. /유호상 기자

민주 전북 광역의원 후보군 결정

익산 1·2·3·4, 김제 2선거구 등은 제외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 광역의원 후보군이 김제 일부지역과 익산지역을 제외하고 결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광역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단수 공천이 확정된 전주 1·3·8·9·10·12선거구와 김제 1선거구, 고창 2선거구, 완주 2선거구는 제외됐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획정이 늦어진 김제 2선거구와 익산 1·2·3·4 선거구 역시 발표에서 제외됐다.

경선 결과 전주 2선거구는 진형석 후보가 권리당원선거인단 결과 100%와 경선 가감산을 합한 종합 백분율 최종 결과 55.74%로 이동권(44.28%) 후보에 앞섰다.

전주 4선거구는 김이재 43.73% 이민아 31.72%, 한기표 24.55%를 기록해 김이재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전주 5선거구에서는 최형열 44.94%, 강동화 30.50%, 송승룡 24.58%의 순위를 보였다.

전주 6선거구는 김희수 53.15%, 김은영 46.85%로 김희수 후보가 확정됐다.

전주 7선거구는 이병철 66.37%, 송관수 33.63%를 보여 이병철 후보가 민주당을 대표하게 됐다.

전주 11선거구는 김명지 후보가 56.39%를 차지해 김종단(43.61%) 후보에 앞섰다.

군산 1선거구는 강태창 후보, 군산 2선거구 김동우 후보, 군산 3선거구 박정희 후보, 군산 4선거구 문승우 후보로 결정됐다.

정읍 1선거구는 임승식 후보, 정읍 2

6·1 지방선거 본선 진출
민주 전북 광역의원 후보군

<5월 1일 현재>

▲전주1-이병도	▲정읍2-염영선
▲전주2-진형석	▲남원1-이정민
▲전주3-송승룡	▲남원2-양해원
▲전주4-김이재	▲김제1-나인혁
▲전주5-최형열	▲완주1-윤수봉
▲전주6-김희수	▲완주2-권요안
▲전주7-이병철	▲진안-전용태
▲전주9-강동화	▲무주-윤정훈
▲전주9-서난이	▲장수-박용근
▲전주10-이영면	▲임실-박정규
▲전주11-김명지	▲순창-손충호
▲전주12-국주은	▲고창1-김성수
▲군산-강태창	▲고창2-김만기
▲군산-김동우	▲부안-김정기
▲군산8-박정희	
▲군산9-문승우	
▲정읍1-임승식	

***익산1~4
김제2 제외

선거구는 영영선 후보로 결정됐다. 남원에서는 1선거구 이정민 후보, 2선거구 양해선 후보로 확정됐다.

완주 1선거구는 윤수봉 후보가 본선에 도전한다.

진안 선거구에서는 전용태 후보, 무주 윤정훈 후보, 장수 박용근 후보, 임실 박정규 후보, 순창 손충호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거머쥘다.

고창 1선거구에서는 김성수 후보가 결선 후보로 결정됐으며 부안 선거구에서는 김정기 후보가 민주당을 대표

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유호상 기자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어선 운행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전북도, 군산시는 탄소복합재 적용한 소형선박의 운행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8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고, 2021년 1월부터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

전북 규제자유특구서 추진

조 및 운행실증 사업과 이를 통한 어선구조기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복합재)를 적용하기 위해 어선구조기준 내 탄소복합재(CFRP) 적용 기준 신

설 및 일괄 적용되는 두개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이번 특구사업을 통해 3톤(다목적), 7.93톤(어업용), 9.77톤(낚시용) 탄소복합재 선박을 제조,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총 2,000시간의 운행실증과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구역은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 노선을 고려해 어청도 십이포동도 연도 위도 인근 해수면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으로 설정했다.

실증 운영을 통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어선구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어선구조기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 및 특구사업자들은 실증사업의 전반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시민과의
행복한동행
익산시의회
”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염원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에, 익산의 미래에
희망의 길을 열어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ISEAN CITY COUNCIL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